



- 법적으로 어떤 조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는 사람 혹은 기업이 실제로 그 부담을 전부 지는 것은 아님

1. 조세부담의 귀착: 기초적 논의

- 조세부담의 귀착(incidence)은 궁극적으로 조세부담이 누구에게 떨어지는가를 의미

1. 조세부담의 전가

(1) 법적 귀착과 경제적 귀착

- 법적 귀착 : 조세법상
- 경제적 귀착: 실제로
- 둘의 차이는 전가(shifting) 되는 현상 때문
- 실제 부담은 조세부과의 결과로 그의 실질 가처분 소득이 얼마나 줄어드는지에 의해서 측정 가능

(2) 조세부담의 전가

- 조세부담의 전가 = 조세납부액 - 실질가처분소득의 변화폭 $(= \frac{Y - T_y}{P})$
- 부담의 전가는 경제적 관계의 특성에 의해 저절로 일어남

- ① **전전(forward shifting)** : 상품의 소비자 가격이 높아져 상품을 구입하는 소비자와 실질적으로 법인세 부담의 일부를 지는 결과
- ② **후전(backward shifting)** : 생산요소가 상품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보고 판단 가능 (예) 법인세 부과로 기업이 노동의 고용량을 줄이는 반응을 보여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하락하는 경우
- ③ **소전(transformation)** : 조세납부 생산자가 더욱 효율적인 생산을 통해 생산비를 절감

2. 조세부담의 주체

- 자연인과 법인
- 형식상 법인이 조세부담을 지나, 궁극적으로 부담을 지는 것은 개인임

(1) 기능별(functional) 소득분배

: 자본가, 노동자, 지주 등 상이한 생산요소 공급자에 대한 국민소득 분배

(2) 계층별(size) 소득분배

: 부유층과 빈곤층과 같이 소득의 크기에 따라서 나눈 계층간 소득 분배

3. 부담의 원천 측면과 사용측면

- 조세부과의 부담은 결국 실질 가처분 소득(RDI)의 변화로 판가름
- 실질 가처분 소득은 명목 가처분 소득(명목소득-소득세)을 물가수준으로 나눈 것

$$RDI = \frac{NDI}{P} = \frac{Y - T_y}{P}$$

(1) 원천별 효과

: 소득의 원천에 생긴 변화(분자)

- ① 소득세가 부과되어 명목가처분 소득이 감소
- ② 명목 소득 자체가 감소 : 조세부과로 총수요가 전반적으로 감소해 근로자들의 소득 하락

❶ 고용효과에 의한 부담

: 조세가 고용상태에 영향을 주어 근로자들에게 부담

❷ 투입효과(input effect)

: 저축에 대한 과세가 자본축적을 줄이고, 노동에 대한 수요감소로 임금이 하락하는 결과
→ 생산요소 공급자에 대한 부담

(2) 사용측 효과

- ① 납세자가 상품구입시 지불하는 가격이 올라가 실질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경우(물품세 부과로 소비자 가격 상승)
- ② 분모값 커짐

4. 귀착의 여러 개념**(1) 균형예산귀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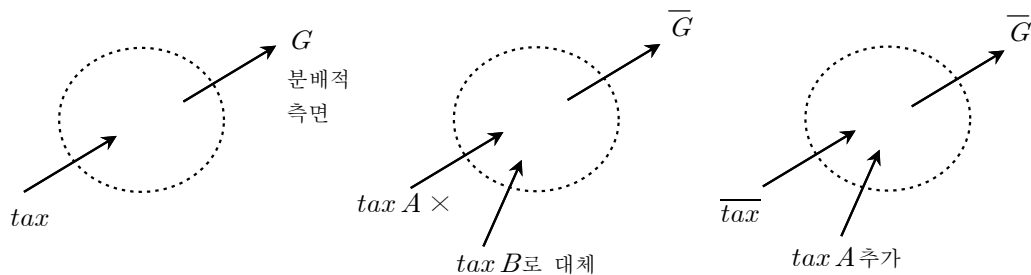
- 조세징수와 지출프로그램의 효과를 함께 묶어 분석
- 국민연금제도 같이 독립적인 성격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 지출측면이 중시되는 프로그램의 분배적 효과 분석
- 정부가 조세 수입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관심

(2) 차별귀착

- 한 종류의 조세를 똑같은 조세수입을 가져다주는 다른 종류의 조세로 대체시 분배효과 분석
- 부가가치세를 동일한 세수의 소득세로 대체
- 가상적인 중립세를 비교대상으로 삼아 어떤 조세의 분배적 효과 분석

(3) 절대귀착

- 다른 조세가 지출에 아무런 변화가 없다는 가정하에서 특정한 조세의 분배적 효과 분석
- 편리하지만 조세의 분배적 효과를 분석하기 적합하지 않음

**5. 다른 기준에 의한 귀착 구분****(1) 부분균형분석과 일반균형분석에 의한 귀착****(2) 단기와 장기에서의 귀착**

※ 저축에 조세 부과시

① 단기 : 저축자의 부담 증가

② 장기 : 저축의 감소가 자본스톡의 감소 → 노동수요의 감소 → 임금하락

∴ 자본과세의 부담은 근로자에게까지 영향

(3) 개방경제와 폐쇄경제의 귀착

: 경제규모가 작고, 개방정도가 큰 경제(스위스)의 자본과세 실시 (⇒자본공급곡선은 수평)

① 세전수익률이 바로 그 과세 폭만큼 상승해 세후 수익률은 종전과 다름없이 유지

② 세후 수익률이 예전보다 조금이라도 낮아진다면 자본은 대거 유출 가능

2. 귀착의 분석 : 부분균형분석**1. 물품세의 귀착****(1) 경쟁시장에서의 부담 귀착**

- 종량세와 종가세

■ **협상력**에 따라서 달라짐

■ 물품세의 납세 의무가 소비자에 있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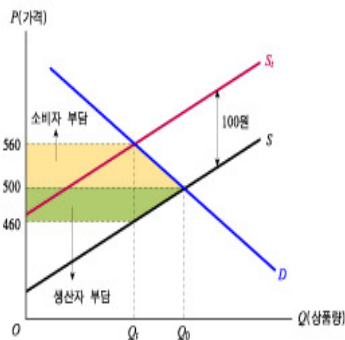
: 소비자는 세금이 포함된 것이든 포함되지 않은 것이든 간에 자기가 내는 가격에만 관심

→ 예전과 같은 가격을 내고자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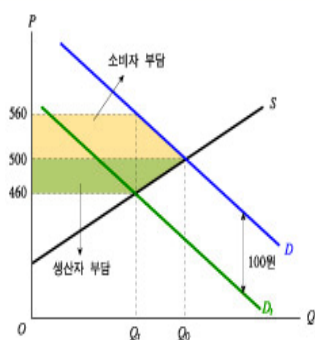
∴ 공급자가 실제로 받는 가격은 소비자가 내려는 가격에서 세금을 뺀 것으로 수요곡선 하방이동

■ 경제적 귀착의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와 생산자 중에서 누구에게 납세의무를 지우는지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음

물품세의 귀착 그림 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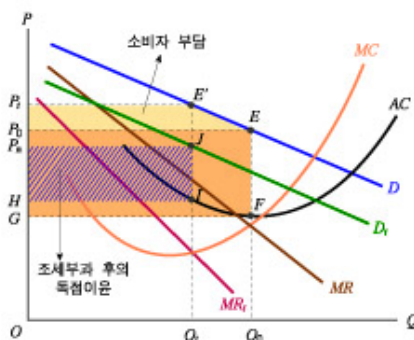


물품세의 귀착 : 소비자가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 그림 14-3



(2) 불완전 경쟁시장에서의 부담 귀착

그림 14-4 물품세의 귀착 : 독점시장



■ 분석 결과 독점시장에서 거래되는 상품에 부과된 물품세의 부담이 일부는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다른 일부는 독점적 생산자에게로 귀착됨

→ 생산자가 독점력을 보유하고 있어도 조세부담을 모두 소비자에게 전가시키지는 못함

■ 가격 상승폭이 클수록 소비자의 상대적 부담이 큰데 그 상승폭은 수요곡선과 한계비용곡선의 기울기에 의존

※ 예외적인 경우로 가격 상승폭이 세금보다 더 커서 조세부담의 100%이상이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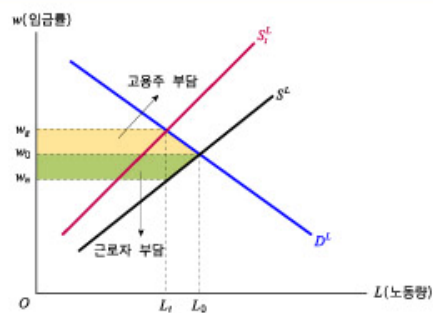
2.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 귀착

(1) 노동에 대한 과세

■ 근로소득세의 경우

- ① 종가세 일종 (근로노동의 일정 비율을 세금)
- ② 노동공급곡선 상방이동(평행이동은 아님)

그림 14-5 노동에 대한 과세의 귀착



근로소득세 부과로 세금을 제외한 순임금을 하락

→ 근로자의 부담, 고용주의 일부 부담 → 수요와 공급의 탄력성이 부담의 상대 몫 결정

(2) 자본에 대한 과세

■ 경제의 개방성(openness) 정도에 좌우

■ 완전개방적인 경우

- 공급탄력성은 ∞ (국제적으로 정해진 이자율에서 무수히 많은 자본이 국내 자본시장으로 공급가능)
- 자본 공급곡선은 수평선
- 자본의 과세부담은 전적으로 자본 사용자에게 귀착

■ 경제의 개방성이 높을수록 자본에 대한 과세가 자본의 사용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높음

(3) 조세의 자본화(tax capitalization)

■ ① 토지와 같이 공급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완전 비탄력적) ② 내구성을 가진 상품

→ 조세 부과시 조세부담이 자본화하여 가격이 하락하는 현상

■ 자산의 가격이 미래에 발생할 조세부담의 현재가치에 해당하는 부분만큼 하락

→ 앞으로 세금 부담이 미리 예측되어 가격에 반영되는 현상

■ 토지시장이 완전경쟁적일 때 토지가격과 임대료 수입 흐름의 현재가치는 서로 같아짐
(r :기간당 할인율, P_L :토지 가격, R : 기간당 임대료 수입)

$$P_L = R_0 + \frac{R_1}{(1+r)} + \frac{R_2}{(1+r)^2} + \dots + \frac{R_n}{(1+r)^n}$$

⇒ 임대료 수입에 조세 부과시

$$P_L^t = R_0 - t_0 + \frac{R_1 - t_1}{(1+r)} + \frac{R_2 - t_2}{(1+r)^2} + \dots + \frac{R_n - t_n}{(1+r)^n}$$

■ 토지에 조세부과 결과가 그 가격이 미래 조세부담의 현재가치 만큼 하락 ⇒ 조세의 자본화 현상

$$\Delta P_L = t_0 + \frac{t_1}{(1+r)} + \frac{t_2}{(1+r)^2} + \dots + \frac{t_n}{(1+r)^n}$$

<의미>

미래에 예상되는 조세부담은 현재 그 토지를 소유하는 사람에게 전적으로 귀착되는 결과

→ 실제 세금 부담자는 미래 그 시점에서 토지 구입자이지만 자본화로 이미 낮아진 가격을 주고 구입했기에 실질적으로 부담은 없는 셈

<현실 적용>

토지 공급이 완전 고정된 것이 아닌 현실에서 약간 신축성이 있다면 (경제적 용도에 사용가능한 토지는 상당히 신축적일 수 있음) 완전한 자본화는 일어나지 않음

3. 귀착의 분석 :일반균형 분석

1. 모형의 기본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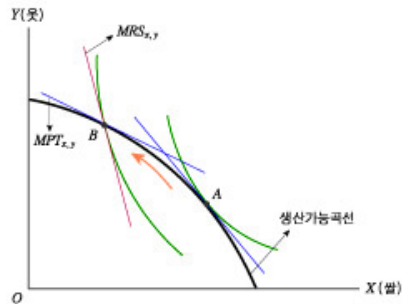
- ① 생산요소는 노동(L), 자본(K) 존재 ⇒완전이동성 지님
- ② 두 재화 생산, 쌀(X), 옷(Y)
- ③ 완전경쟁 상황
- ④ 생산함수는 1차동차, 선형동차(linearly homogeneous)특성
단, 쌀(X)가 옷(Y)보다 노동집약적
- ⑤ 소비자들의 선호는 동일

※ 일차동차생산함수는 규모수익불변(CRS)특성을 지니고, 노동집약적인 쌀(X)는 생산과정에서 그 관계가 계속 유지된다는 특성

2. 한 상품에만 물품세 부과

(1) 특정 물품세 부과 : 생산가능곡선 위의 이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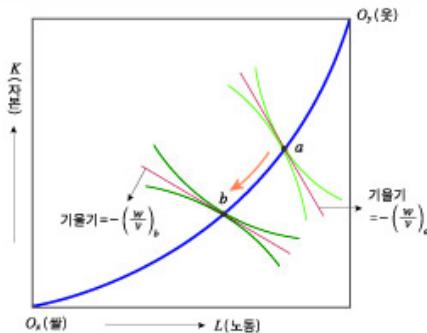
그림14-6 특정물품세의 부과 : 생산가능곡선 위의 운동



$$MRS_{xy} = \frac{(1+t_x)P_x}{P_y} = (1+t_x)MPT_{xy}$$

(2) 쌀에만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

쌀에만 물품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림 14-7



조세부과의 결과 노동의 상대가격이 하락하고, 자본의 상대가격은 상승

→ 노동집약적인 방법으로 생산되는 쌀(X)에 물품세가 부과되어 자원의 이동이 생겼기 때문임

(3) 결론

① 어떤 한 상품에만 부과되는 물품세는 그 상품의 생산과정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는 요소의 상대가격을 하락

※ 요소의 상대가격이 변화하는 정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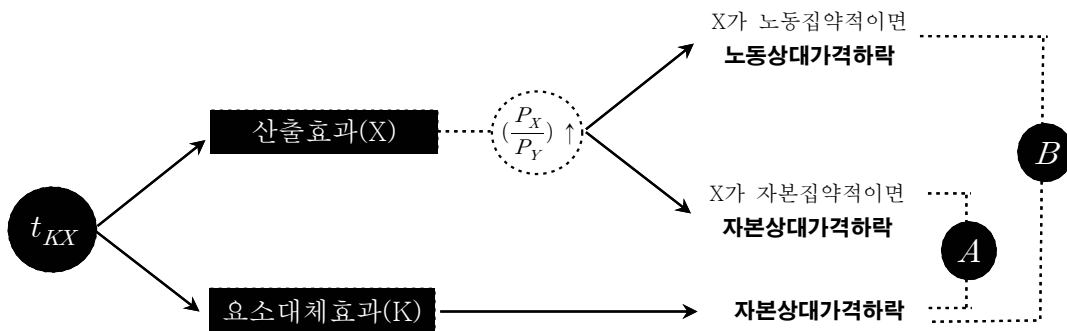
- ❶ 두 산업 사이에 요소집약도(factor intensity)의 차이가 클수록
- ❷ 조세부과 대상이 된 상품에 대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클수록
- ❸ 요소 사이의 대체탄력성이 작을수록

- ② 원천측 : 물품세가 부과된 산업에서 집약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생산요소의 공급자에게 부담 귀착
 ③ 사용측 : 과세되는 상품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소비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부담
 → 수요의 소득탄력성이 큰 사치재에만 물품세 부과시 부유층이 상대적으로 더 큰 부담

※ 생산요소 투입이 가변적인 경우

생산요소의 공급이 가변적인 것은 가격의 변화에 대해 공급이 신축적으로 반응한다는 의미
 ⇨ 노동의 가격이 하락하면, 노동 공급이 감소하는데, 노동의 상대가격을 어느정도 막는 효과

3. 한 생산부문에서 사용되는 하나의 생산요소에 대한 과세



※ 요소의 상대가격(w/r)의 변화가 커지는 경우

- 요소집약도의 차이가 클수록
-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 대체탄력성이 작을수록

〈예제〉

1. 조세귀착 분석을 위한 표준적인 2부문, 2요소 일반균형모형에서 법인부문인 X재산업이 노동집약적이라면 자본 소득과세인 법인세의 부과가 임대료-임금비율(r/w)에 미치는 종합적인 효과는?

- ① r/w 을 상승시킨다.
- ② r/w 을 하락시킨다.
- ③ 산출효과가 요소대체효과보다 크면 r/w 상승
- ④ 산출효과가 요소대체효과보다 크면 r/w 하락
- ⑤ 요소대체효과가 산출효과보다 크면 r/w 상승

2. X재와 Y재의 두 생산부분과 노동(L)과 자본(K)의 두 생산요소로 이루어진 하버거모형에서 X재 생산부분의 자본소득에 과세하는 경우 그 세 부담의 귀착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X재 생산은 자본집약적으로 이루어진다고 가정함)

- ① X재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클수록 산출효과의 크기는 커진다.
- ② 산출효과에 의해서는 자본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
- ③ 요소대체효과에 의해서는 자본의 상대가격이 하락한다.
- ④ 요소사이의 대체탄력성이 클수록 요소상대가격의 변화폭이 커진다.
- ⑤ 두 생산부문간 요소집약도의 차이가 클수록 요소상대가격의 변화폭이 커진다.

3. 조세의 귀착에 대한 하버거 일반균형모형에서 노동집약적인 X재 산업의 자본에 대해 부분요소세를 부과할 경우 나타나는 현상을 바르게 설명한 것은? 단 경제전체의 요소(노동, 자본) 공급량이 고정되어 있고 요소의 산업간 이동은 자유롭다고 전제한다. (r/w 는 노동에 대한 자본의 상대가격)

- ① 산출량 효과는 r/w 상승, 요소대체효과는 r/w 하락
- ② 산출량 효과는 r/w 상승, 요소대체효과는 r/w 상승
- ③ 산출량 효과는 r/w 하락, 요소대체효과는 r/w 상승
- ④ 산출량 효과는 r/w 하락, 요소대체효과는 r/w 하락
- ⑤ 산출량 효과와 요소대체효과가 정확히 상쇄되어 r/w 는 불변

4. 노동과 자본을 투입하여 X재와 Y재를 생산하는 하버거의 일반균형모형에서 X재는 노동집약적, Y재는 자본집약적으로 생산되며, 두 재화의 생산기술은 규모수익불변(CRS)이고, 노동과 자본의 총공급량은 고정되어 있지만 산업간에 이동성은 자유로우며, 두 재화의 생산에 완전 고용된다고 가정한다. 생산물시장과 생산요소시장은 완전 경쟁적이며 기업은 이윤극대화를, 소비자는 효용극대화를 목표로 한다. 정부가 X재의 생산에 투입되는 자본에 대해서만 '부분 요소세'를 부과하는 경우 일반균형모형하에서 발생하리라고 예상되는 현상으로서 가장 적합하지 않은 것은?

- ① X재의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X재의 수요량은 감소할 것이다.
- ② 요소대체효과는 자본의 상대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다.
- ③ 두 재화의 생산에 있어 자본-노동비율이 동시에 증가할 것이다.
- ④ 산출효과는 노동의 상대가격을 하락시킬 것이다.
- ⑤ 재화의 생산이 생산가능곡선의 안쪽에서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다.